

학교 비정규직 5만명 오늘 파업 돌입… 급식·돌봄 ‘대란’

김밥·도시락·빵 등으로 대체
학교별 휴업·단축수업도 검토
교육당국 “마지막까지 협상”
노조 “기본급 6.24% 인상을”
협상 타결돼도 노사갈등 잔존
‘교육계 파업’ 근본 대책 필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막판 협상에서 교육당국 측 김선욱 광주광역시교육청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3일~5일 예고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파업에는 노조원 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1일에 이어 2일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파업 규모 축소나 철회를 놓고 막판 비공개 협상에 나섰다. 이날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그로 인한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을 타고 노사 갈

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인원의 80% 수준이 된 상황이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나 직고용 등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수준의 노사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직에서 교

육감 직접고용 형태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당직·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4000여 명을 직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등 교육청이 최근 3년 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한 인원은 1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 형태에 따른 별

도 노조를 구성하지 않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기존 노조에 흩어져 가입해 기존 계약직과 함께 노사교섭을 진행하면서, 이해 관계가 얹혀 있어 노사 협상의 결렬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중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급식, 돌봄 공백,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노조 측과 협상을 벌여 파업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식사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대란이 발생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파업 발생을 대비해 학교별 상황에 따라 기성품 도시락이나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개인별 도시락을 지침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 수

업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 측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등 각종 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측 입장차는 크다. 이날 협상에 나선 교육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에 추가적 인제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막판 협상을 통해 파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가 상이한 전국 단위 파업인 만큼 파업 철회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이번 위기를 넘겨도 노사갈등과 쟁의, 파업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기관의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 3월말부터 보급이 시작된 전투복에 보풀이 발생했다. 레이온 소재 비율을 높여 착용감을 향상시켰지만, 불에 타기 쉽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능성 높인 新전투복, 내구성은 ‘글쎄’

“보급 한 달 만에 심한 보풀”
연구역량 부족, 신중 개선을

육군은 지난 3월말부터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키는 ‘흡한 속건’ 기능과 신축성 등 활동성이 향상된 개선 전투복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더위와 바스락거리는 착용감 등이 문제다. 레이온의 비율을 높여 착용감을 향상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투적 합성의 방향을 착용감과 내구성 중 착용감에 치우치게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병의 전투복에서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크게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언론들은 전투복의 난연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과연 불에 잘타지 않는 난연만 문제일까.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전투복에 대한 격한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악하다는 일선 장병의 의견이다.

◆군 안되는데 새 전투복엔 보풀

복수의 군인들은 2일 본지에 개선 전투복이 불에 잘타고 녹아들어가는 것외에도 보풀이 쉽게 일어난다는 제보를 해왔다.

의명의 군인은 전투복 사진과 함께 “지난 5월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전투복을 받았지만 보급받은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보풀이 일어났다”는 설명을 보내왔다.

또 다른 군인은 “새로 보급된 전투복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보급된 디지털 4도색 ‘화강암 위장’ 전투복에도 꾸준히 문제는 제기돼 왔다”면서 “소재의 내구성 등에 초점을 맞추면 언론에서는 착용감을 지적하고, 착용감을 개선하면 내구성의 문제가 떠오르는 식”이라며 군의 개선방향이 신중하고 뚜렷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투복 등 군용 섬유 산업계에서는 레이온의 비율을 높인 것만으로 보풀이 더 발생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관련산업 연구자는 “전투복 납품 업체의 생산 공정과 국방 규격 등 다양한 변수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투복의 전투적 합성 기준을 외국과 정확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새로운 전투복 고민 제대로 해야

한 군사전문가는 “미 육군의 경우 전투를 경험한 애전 장병들의 요구를 즉각 수렴할 수 있는 나티언구소 등 연구기관이 있다. 민간 기업들도 군에 구매 요구도를 먼저 제시할 만큼 선행 연구 등이 활발한 상황”이라면서도 “국군의 경우 국방 기술 품질 원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미군과 비교하면 연구 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직장인이 매긴 밀레니얼 세대 점수는… 5.7점

<10점 만점 평균>

밀레니얼 세대 인식 조사

부족한 부분 ‘책임감’ 꼽아
장점 1위 ‘IT·컴퓨터 능력’

밀레니얼 세대(1980년~200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직장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장 내 밀레니얼 세대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소통 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2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 직장인 5013명을 대상으로 ‘밀레니얼 세대 직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에 평균 5.7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6점을 준 직장인이 25.5%로 가장 많았고, 5점(22.6%), 7점(18.2%), 4점(12.6%), 8점(9.3%)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밀레니얼 세대 직원의 가장 큰 장점(복수응답)으로는 ▲IT·컴퓨터 능력이 응답률 34.4%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창의성(27.5%) ▲글로벌 감각 및 외국어(25.6%) ▲업무에 대한 지식(19.5%) ▲주전력(10.8%)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이들 밀레니얼 직원들이 타 세대 직원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으로는 ▲책임감이 응답률 32.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끈기(29.2%) ▲성실성(24.0%) ▲소통 능력(23.3%) ▲

조직에 대한 충성심(18.8%)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이 앞선 세대와 다른 원인으로는 ▲인터넷·휴대전화의 발달을 꼽은 직장인이 50.7%로 절반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제가 적거나 외동이라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해서(22.4%) ▲경제적 풍요(13.3%) ▲조기 유학·어학연수·해외여행 등이 보편화돼서(6.7%) ▲사교육(4.4%) 등을 꼽았다.

한편, 직장 내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는 세대는 ▲38세대 직장인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X세대 직장인(36.7%)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25.3%) 순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1차 12일, 2차 23일~내달 16일 마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1차 학생 모집을 오는 12일까지, 2차 모집은 2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올해 인공지능(AI), 초연결 사회 등 문명의 대 전환기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지향적 전공 개설을 목적으로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을 진행했다.

올 1학기부터 미래 인간 과학 스쿨(재난 방재 과학 전공, 공공 안전 관리 전공), 한방 건강 관리 학과, 소프트웨어 디자인 융합 스쿨(AI 사이버 보안 전공, ICT 융합 콘텐츠 전공, 산업 디자인 전공), 금융 부동산 학부(도시 계획 부동산 전공)를 신설했다. 또 문화 예술 경영 전공, 미디어 영상 헤리티지 보전 공, 금융 경제 전공, 후마니티 스학과, NGO 사회 혁신 학과 등 개편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경희사이버대학교

진행해 3개 계열, 5개 학부·스쿨, 33개 학과(전공) 체계를 마련했다.

수능이나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 소개(80%)와 인성 검사(20%)로 선별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에 재학생·졸업생은 2·3학년 편입 학도 가능하다. 졸업하면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인천대서 오늘부터 사흘간 ‘2회 한자대학동맹 컨퍼런스’

인천대학교는 3일~5일까지 교내에서 국내외 60여개 주요 대학 총장과 주한 외국 대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자대학동맹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반기문 국가 기후환경 회의 위원장(전 UN 사무총장)이 4일 ‘고등 교육을 통한 글로벌 지속성’을 주제로, 이어 벤 넬슨 미네르바대학 설립자가 ‘창의성과 혁신의 시대와 고등 교육의 도전’을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하고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또 이날 첫 번째 세션 ‘포스코 프레지던트 세션’에서 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사회를 맡고 알렉산드르 카트라이트 미국 미주리 대 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5일에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 기조연설하고, 각 대학의 개혁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한용수 기자